

## 보상 -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으리라(마음이 시린 날에도 '생명의 하나님'을 누리다)

### 요한복음 16장 20-2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쁨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길〉을 읽어가며 무엇보다 각 챕터의 제목들이 너무도 와 닿았습니다.

다 읽고 나서야 헨리 나우웬 자신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었던 시기에,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며 이론이 아닌 그에게 현실이었던 제자도의 삶을 강연으로 한 내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매일 묵상을 통해서도 같은 것을 느낍니다.

위대한 두 영성가의 특별한 삶이라고 선긋기보다, 비록 시대와 환경은 다르지만,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따르는 동일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길'을 먼저 간 선배로서, 신앙의 멘토가 되어 친절하고 따스한 음성으로 말해주며 그 길의 안내자가 되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챕터 5에서 〈기쁨〉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헨리 나우웬은 서두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반드시 기쁨이 함께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요 15:11)*

책을 읽으며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기쁨이, 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쁨과 같은 의미일까?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던 저자는 어떻게 기쁨을 발견하고 '생명의 하나님'을 누리며 충만한 삶을 살았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는 참된 기쁨의 비결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완전한' 모델이신 예수님의 기쁨의 닳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소통에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바쁘신 중에도 늘 기도하심으로 하늘 아버지와 소통하셨음을 볼 수 있는데 그럴 때 마다 잠시 궁금함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예수님은 하나님이기도 한데 굳이 그러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아마도 우리에게(제자들에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르쳐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

니었을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기쁨은 거의 대부분 육체적, 정신적 차원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영적 차원으로 깊어지고 확장된 '진짜 기쁨'에 대해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부름 받았다.” (pg140)

기쁨의 이유가 어떤 외적인 것이나 우리의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므로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기쁨, '참된 기쁨' 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 - 주님과와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참 기쁨이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는 삶..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이 영원하길,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주님이 사랑하신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설명해주시는 주님의 애뜻한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이 다시 느껴집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의 그 마음을 깨닫고 온전히 그 사랑을 받아 누릴 때 그 사랑을 준 사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기쁨이 예수님께서 11절에서 말씀하신 '내 기쁨'의 의미가 아닐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너희 기쁨)' 이 될 때, 세상이 알 수도, 흉내 낼 수도 없는 기쁨과 충만함으로 가득한 영적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사망을 이기고 너희에게 끝없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다'(pg128)

라고 말씀하시지만, 나는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진짜 기쁨 '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살고 있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나의 기쁨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소유에 있지는 않은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연약한 나의 감정에 있지는 않은지 다시 되돌아봅니다.

'세상에 발 딛고 살지만 세상에 속하도록 부름 받지 않았다' 는 신앙 선배의 말이 귓전을 맴돌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기쁨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것이 큰 도전이라고 한, 헨리 나우웬의 말이 마음에 깊이 박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큰 도전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받아 누리는 것이다”(pg128)

예수님을 따른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을 '기쁨'입니다. 지난 주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를 능히 감당하는 사랑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보상이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기쁨은 늘 새로움과 맞물려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늘 새로운 기쁨을 맛보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기쁨을 느끼는 것은, 그 어린 생명들이 매일 매일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헨리 나우웬이 멋진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해묵은 슬픔은 있어도 해묵은 기쁨은 없다는 것'

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기쁨에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선택을 하게 합니다.

#### 1. 틀에 박힌 행동.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늘 ‘안전’에 집착합니다. 안전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틀에 박힌 행동을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모험을 통해 활기를 얻기 보다는 좀 불행하더라도 안전한 쪽을 선호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안전을 선택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무서운 무기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얼만 전 방송을 통해 ‘원자폭탄’을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 핵 폭탄을 만든다는 정보를 알게된 아인슈타인은 미국 대통령에게 몇 차례 편지를 씁니다. 독일에서 폭탄을 만들기 전에 미국에서 먼저 핵 폭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핵폭탄을 상용한 것은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한 것입니다. 미국은 이제 인류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진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위협 때문에 소련에서도 핵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1953년 소련이 핵 실험에 성공한 것으로 인해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인류에 평화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핵을 보유하게 됩니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안전을 제일의 관념으로 삼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쁨은 안전한 자리에서 뛰쳐나와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에서 벗어나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 2. 두려움에 대한 또 하나의 반응은 ‘뿌리 없는 행동’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공황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너무 두려워 뿌리를 잃고 술이나 마약 섹스나 쾌락을 탐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쁨도 아니고 자유도 아닙니다. 단지 뿌리 없는 사람들이 불안하고 초조해서 행하는 일들입니다. 편안히 뿌리를 내리고 거할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누릴 수 있는 기쁨도 없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는 틀에 박힌 전통방식에 집착할 수도 있고, 두려움 때문에 떨며 이성을 잃고 방종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아닙니다.

### 참된 기쁨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참된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20-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쁨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설명하셨습니다. 더 이상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요16:16)

‘보지 못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라는 말씀은 부활을 의미하지만 지금 제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근심가운데 빠졌고 슬퍼졌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 세상은 기뻐합니다.

제자들은 슬프가운데 잠시 애통하지만, 주님이 이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마치 여인이 해산하게 되는 때 근심걱정하지만, 잠시 후면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순간이 오면, 이전의 고통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기쁨이 과거의 고통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누리셨던 기쁨은 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운데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깊이 속했다는 것이 기쁨의 근원이었습니다.

주님이 아버지께 속하여 있다는 증거는, 늘 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하므로 순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아버지께 순종하시는 순간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소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느껴지지 않았을지언정 그 소통을 잃으신 것이 아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실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았으나 그래도 그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셨다. ‘내 아버지는 결코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 이것이 바로 기쁨의 뜻이다. 기쁨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소통에 연결되어 있다.”

세상은 우리가 경험하는 슬픔이라는 감정을 ‘불행’이라 말하고 ‘기쁨’이라는 감정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행복한 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슬픔을 잊기 위해 행복한 순간은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잠시 술을 먹으며 그 순간을 잊으면 될까요?

우리가 탐닉하는 많은 행동들이 사실은 슬픔을 잊기 위한 이들이 아닐까요? 그래서 수 많은 상품들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전략이 슬픔 많은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기쁨을 팔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기쁨이란.

**“기쁨은 틀에 박힌 상태와 뿌리가 없는 상태 사이에 낀 어느 적당한 중간 지점이 아니다.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니다. 기쁨은 무거운 삶의 짐에서 잠깐씩 해방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문제를 외면하는 도피처도 아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적인 차원이다. 그저 감정이나 육체적 상태가 아니라 영적 선물이다.”**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참된 기쁨은 슬프거나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날 때도 한결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지극히 어려운 상황가운데서도 여전히 건재한 그러한 기쁨입니다.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특유의 기쁨은 건강할 때도 병들 때도 우리가 성공하거나 실패할 때도, 태어날 때나 죽을 때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 기쁨입니다.

이러한 예를 우리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나 양로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늘 죽음을 대면하며 살아갑니다. 늘 슬픈 상황을 겪지만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가난한 사람들 섬기든 이들이 부유한 나라와 도시에 오면 빨리 현지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가난이나 불행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맛보았던 기쁨을 알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고난을 기쁨으로 연결하는 고리가 있습니다.

**“기쁨은 우리가 흔히 행복의 대용품으로 삼는 물질적인 것들보다 더 깊은 것이다.”**

참된 기쁨은 슬픔 한 가운데 숨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죽음과 고통의 상징인 십자가를 보면서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얻는 세속적인 성공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속으로 들어가서 기쁨을 함께 누리자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진정한 영성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성공과 부를 가지면 가질수록 왠지 불안해지는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근원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 실존이 가지고 있는 고통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기쁨은 인간의 고통스러운 마음속에도 숨어 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감히 ‘십자가에 나의 기쁨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 우리는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새 생명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희망의 징후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경험하는 슬픔은 왠지 해산의 진통과 비슷하다. 고통 가운데 새 생명이 불쑥 나올 것처럼 느껴진다. 우리 삶의 고뇌와 고통과 고난은 전혀 새로운 무엇을 낳는 과정이다.”

지금 우리와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바로 이 ‘진정한 기쁨’을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잘 될 것입니다.’라고 가르쳤지만, 더 중요한 것은 두려움 가운데서 이기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두려움을 겪는 것들이 하등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제자의 도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끊임없이 말씀 하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면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이 따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피할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더구나 세상이 이러한 우리의 슬픔을 기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길은 두려움 보다 더 큰 기쁨을 깨닫게 되는 신비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 질 것입니다.” 늘 장밋빛 인생을 그려왔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 견뎌야 하는 시간들에 대하여 애써 외면했던 것은 아닐까요? 늘 기쁘게 사는 것이 믿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기쁘지 않은 상황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 기쁘게 사는 비결

헨리 나우웬은 우리들에게 ‘경축’하는 삶으로 기쁨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경축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잔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을 하늘의 복으로 알고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한 절기를 지키던 것에서 벗어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을 ‘하나님의 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경축’은 좋은 순간만을 경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고통스러운 순간과 이별과 죽음조

차도 피하지 않고 끌어안은 것입니다.

**\* 『부활』, 이용규 김상철, 규장, 2020**

(추천 글—유기성 목사,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자)

~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 없이 십자가를 지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부활을 확실히 믿었던 제자들 모두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에 그들 모두 도망갔고, 베드로는 배신까지 했지만 부활을 목격한 후에는 전부 죽음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만약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화려함과 카타콤 중 어느 세계를 선택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부활 없는 화려함보다 부활과 함께하는 어둠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게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

우리에게 부활은 단순히 다시 살거나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안에서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죽음 이후에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연습하며 살아가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 수 있을까? 김성권 장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경축하도록 부름 받았다. 경축celebration은 삶으로 나타나는 기쁨이다.

p.141 우리의 삶은 경축하는 삶이다. 경축이란 이 순간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순간입니다”라고 아뢰는 것이다. 만일 특별한 날만 아니라 삶 전체를 경축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기뻐해야 할 많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p.143 희열의 기쁨은 삶 전체를 끌어안으며 고통스러운 순간과 이별과 심지어 죽음도 피하지 않는다. ~ 고통을 경축함은 고통이 선행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며 함께 우리가 떼를 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괴로움의 순간도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다.

그렇게 때문에 경축은 감사의 표현이다.

p.144 (장애인의 삶\_\_\_\_육체적으로 약한 이들, 병든 이들 등등의 삶이 그렇다.)

우리는 경축하면 할수록 서로가 교감하고 교제를 나누고 있음 깨닫는다. 따라서 경축 속에서 공동체가 생겨난다. ~경축하면 우리 삶의 모든 우여곡절 아래서 흐르고 있는 기쁨의 깊은 물줄기가 드러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보상으로 주신다.

중요한 말입니다.

죽음을 경축한다는 것은 죽음이 바람직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죽음이 우리를 최종적으로 지배할 힘이 없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경축한다는 것은, 고통이 선행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함께 떼를 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의 순간에도 우리는 기도하므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경축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조금 길지만 헨리 나우웬이 경험했던 기쁨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페루에서 빈민들과 함께 하며 사역하던 때, 방이 따로 없어 옥상에 침대를 놓고 생활을 했습

니다. 비도 잘 오지 않지만 늘 흐린 날씨를 보여주던 페루에서 몇 달을 지나고 ‘다음 주에 떠납니다.’라고 말했을 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내 토요일 아침에 내가 ‘이제 한 시간 후면 떠납니다.’라고 했더니 그들도 내 가방을 보고는 정말 가는구나 생각했다.

그 때 어머니 소피아가 어린 조니에게 푼돈을 주자 아이는 가게로 달려갔다. 이미 정오가 되어 버스 시간이 30분도 채 남지 않았기에 나는 불안해졌다. 조니는 큰 코카콜라 한 병과 과자 두 개를 들고 돌아와 ‘파티 시간이예요!’라고 외쳤다.

그러더니 그 빛의 하나뿐인 잔에 콜라를 부어 돌아가며 한 모금씩 마시게 했다. 이어 과자를 잘게 쪼개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다. 열세 살 소년과 파블리토는 ‘음악도 있어요.’라고 거들었다.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지직거리는 낡은 녹음기가 있었다. 아이가 음악을 틀더니 ‘우리 춤도 춰요!’라고 말했다

12시 15분에 집을 나서야 하는데 정오의 파티가 벌어진 것이다. 콜라 조금과 과자 조금, 춤 조금으로 이루어진 파티였다. 그들과 웃고 또 웃으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내 가방을 들고 버스 타는 곳까지 함께 배웅해주었다. 우리는 헤어지는 데 한참 걸렸다. 그리고 나는 방금 우리가 성찬식을 했음을 깨달았다.

그들이 나에게 기쁨을 가르쳐 주었으니 얼마나 귀한 선물인가. 나는 그들의 가난과 여러 어려움과 건강 상태에 대해 알고 있었다. 현실은 냉혹했고 많은 도움이 필요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들은 기쁨을 잃지 않았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 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룸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지난 해 사순절 설교에서 부목사님이 예화로 사용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가장이 사업을 크게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서 사업이 망한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가정에도 어두움이 확 들어옵니다. 식구들이 다 느끼는 것이죠!

말도 없어지고, 마음속에 기쁨이 다 사라지고. 자녀들도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느 날 학교를 갔다가 집에 오는데 너무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아버지 사업은 망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색이 드러나니깐 이 아들이 집에 오는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왔는데, 엄마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학교 갔다 왔어요.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순간 엄마가 설거지를 하면서 찬송을 부르시는 겁니다.

엄마의 찬송 소리를 듣는데 현관에서 그만 딱 얼어붙었습니다. 엄마의 찬송소리를 들으면서 머리에 순간 떠오르는 것이 “아 우리 집에 아직 소망이 있구나”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 날 찬송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집을 지키시는 구나! 그런 믿음과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다.

그런 후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책상에 앉아서 바로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기도한 일이 생전 처음이라는 겁니다. 왜요?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 아버지 망한데요. 하나님이면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처음 기도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난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통곡을 하면서 울게 되더라고요. 우리 집 좀 불어주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고 나니 마음이 너무나도 편해지더라고요. 학교에서 집에 올때는 그렇게 마음이 무거웠는데 기도하고 나니깐 집 안 공기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엄마는 찬송을 하고 있고, 아들의 얼굴 표정은 바뀐 것이지요! 그 후에 남편 분이 살 것 같은 거예요. 사업은 망했는데 집에 들어오면 기쁨이 있는 겁니다. 망한 집에 분위기가 아닌 것이죠! 이 분이 힘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고 경제적인 회복을 주셨는데, 그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중학교 다니던 아들의 믿음이 놀랍게 눈을 뜬 겁니다. 그 아들이 나중에 교회를 섬기는 장로가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장로님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한 이야기입니다.